

안태석, 장선숙 선교사 6 월 기도제목

매일 수 천명씩 태국의 전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여 예배를 몇주 드리지 못하다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 명 이하만 모일 수 있어 토요일에 주일 예배에 오실 분들을 미리 등록을 받았는데 당연히 “피팍”이 일 번이었습니다. 이 분은 올해 70 살인데 집에서 마사지업을 합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장으로 교회의 대표이자 본이 되는 어른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누구보다 더 적극 참여하며, 교회의 힘든 일들을 다 섬겨 주십니다.



<다시 모이는 딱 교회 주일 예배>

그런데 예배드리는 주일날 아침에, 마사지 손님이 와서 예배에 갈 수 없다고 온 성도들이 읽는 교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피팍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형편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보낸 그분의 메시지를 읽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기에 잘못이 있어도 상대에게 쉽사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아침 기도 모임에 오셔서 피팍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주일날 예배를 오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고, 운영위원장으로 형제 자매의 본이 되지 않은 것에 사과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70 살 어른도 울고, 저희도 울었습니다. 태국사람들에게서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잘못했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모습에 참 감동적인 아침이었습니다!!

<감사 제목>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심에 감사, 딱 지역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에 감사, 다시 주일예배가 시작됨에 감사, 7 주간 각 성도들 집을 계속 방문하며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 자녀들을 주의 손아래 지켜 주심에 감사, 한 달 동안 풍성하게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1. **금흘:** 태국은 4 월부터 코로나 3 차확산으로 매일 이천~오천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금흘로 태국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안전:** 이곳 딱 지역은 미얀마와 접경 지대라 불법으로 산을 넘어온 많은 이주 노동자들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져나갔습니다. 지금은 확진자가 넘쳐 대학 강당에 야전병원을 설치하여 치료를 하며, 몇몇 마을은 이미 봉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 병원 시설이나 의료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언제 백신을 맞을지 확진이 되면 치료가 제대로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인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며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아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3. **딱 교회:** 매일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를 시작으로 여러 소모임들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서두르는 마음보다 상황들을 잘 분별하여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상황하에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사역자:** 조이와 독마이는 이제 신학교 마지막 학년인 목회자코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부가 저희들의 영향력을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사역자로 잘 준비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비 사역자 대학생 간와 농께오(사역자 인턴)가 토요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 화 : 070 8251 0151(인터넷폰) / ++66 845 307 544(태국)

이 멜 : taeseok77@hanmail.net/ ~@gmail.com / 카 톡 ID : Simplelifepeter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